



1 뉴질랜드 관광청, 카카오톡으로 국내 관광업체와 소통

뉴질랜드관광청 한국지사는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채널 '뉴질랜드 스페셜리스트'를 지난 9월 오픈했다. 뉴질랜드관광청 공식 여행업계 채널인 '뉴질랜드 스페셜리스트'는 뉴질랜드 관광지, 여행 정보, 현지 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사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개설됐다.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앱에서 뉴질랜드 스페셜리스트를 검색해 채널 추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관광청은 채널 오픈을 기념해 채널을 추가하고 간단한 설문을 제출하면 여행용 뷰티 키트와 최신 업데이트된 뉴질랜드 관광 지도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으며, 여행업계 담당자들을 위한 뉴질랜드관광청의 교육 프로그램인 '키아오라 클래스'도 열고 있다. 뉴질랜드 관광청 권희정 지사장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대면 소통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은 불가능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더 자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미래 시장을 대비하고자 한다"면서 "뉴질랜드의 색다른 매력과 차세대 여행 시장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잘츠부르크, 코로나19에도 가을 축제·자전거대회 개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정된 가을 축제 등 행사들을 개최한다. 잘츠부르크주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산악자전거 세계 선수권 대회를 잘펠덴 레오강에서 개최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올해 대회는 관람객 없이 선수들만 참가한 채 열리게 된다. 또 잘츠부르크주는 잘츠부르크 오베르트룸 암제에서 매년 열여오던 가을 수확 축제도 개최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열릴 예정인 이 축제에는 매년 약 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왔다. 잘츠부르크 농촌의 가을은 수확기와 축제의 시기로 다섯 번째 계절이라고도 부른다.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을 축복하기 위해 농부들은 농작물 수확을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준비하며 함께 모여 축하한다. 추수 축제가 공식적으로 열리고 농업의 전통, 실제 풍습과 요리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2천여 종의 이벤트가 이어진다. 수확 축제에서 농부 호스트들은 룡가우어 에크트링(감자 요리), 푸슬제 지역 송어 요리, 핀츠가우어 쇼트노큰, 한제블르와 사과 라들러 등의 특산 요리를 제공한다.



3 홍콩관광청, 웹사이트 재단장 기념 이벤트

홍콩관광청은 최근 홈페이지 재단장 작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재단장은 지난 2013년 홈페이지 한글화 재단장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는 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고, 최신 여행지 소식과 여행 방법 등을 실었다. 홍콩관광청은 홈페이지 재단장을 기념해 '내가 그리는 홍콩 여행' 컬러링북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 컬러링 도안을 내려받아 완성한 작품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내가그리는홍콩여행 #DiscoverHongKong 해시태그와 올리면 한 달에 3명씩 뽑아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4 하와이, 10월부터 문턱 낮춘다...여행객 2주 격리 면제

미국 하와이가 여행객에게 적용해온 2주 격리 의무가 10월 중순부터 면제된다. 데이비드 이계 하와이 주지사는 10월 15일 이후 외지 여행객이 코로나19 음성 진단을 받으면 격리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행객은 하와이에 도착하기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와이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3월 말부터 외지인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했다. 그러다 8월 1일부터 격리 의무를 완화하려 했으나 미 본토와 하와이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완화를 미뤘었다. 여기에도 검진 물자 부족이 겹치면서 9월 1일 완화하려던 계획도 재차 지연됐다. 이계 주지사는 편의점 내 약국, 카이저퍼머넌트 의료 기관 등이 주 정부와 계약에 따라 검진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들도 승객에게 이 같은 사전 검진 규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하와이 여행객은 90% 이상 줄었다.



5 마카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 위해 빛 축제 앞당겨

마카오관광청은 신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랜 기간 방역과 봉쇄에 지친 마카오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라이트 페스티벌'(빛 축제)을 앞당겨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며 마카오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축제는 매년 12월에 열리지만 올해는 지난달 26일부터 열려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 마리아 헬레나드 세나 페르난데스 마카오관광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벤트가 취소된 가운데 현재 마카오의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다시 주요 행사들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카오 전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특히 탑세광장에서 펼쳐지는 마카오 문화유산 테마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매핑 쇼가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마카오관광청은 특히 라이트 페스티벌 조기 개최가 침체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소노펫클럽&리조트, 펫키리스트 패키지 출시

반려동물 전용 리조트인 소노펫클럽&리조트는 반려견과 함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익스피어런스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패키지에는 반려견 동반 객실과 함께 반려동물 운동장인 플레이그라운드 무제한 이용권과 카페&레스토랑 '딩킹 독' 이용권 등이 포함돼 있다. 딩킹독에서는 반려견 전용 음식과 반려동물 전용 음식이 함께 나오는 페어링 메뉴, 보딩(반려견 위탁) 서비스 1시간 무료 사용권도 제공된다. 개인 SNS에 시설 이용 사진을 최소 1장씩 올리면 웰컴 키트 한 세트를 추가로 주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패키지 가격은 흥천 소노펫클럽&리조트의 경우 19만3천원부터, 소노캉 고양은 26만5천원부터다.

2 콘래드 서울 펫 패키지 내놔

콘래드 서울이 반려동물과 함께 도심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펫밀리케이션'(Petmlication) 패키지를 내놨다. 해당 패키지 객실에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미아카라의 코보 침대(Covo Bed)와 푸드볼(Food Bowl), 스몰 스타프의 디그스텝(Dig Step), 로열테일즈의 반려견 유모차와 독톡(Dogtoc) 배변판 등 반려동물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비치됐다.

또 펫밀리케이션 한정판 장난감과 미니 필로우, 간식 등으로 구성된 12만원 상당의 웰컴 어메니티 키트도 제공된다. 객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원하는 고객은 룸서비스는 물론 호텔 셰프팀이 직접 만든 반려동물용 수제 케이크도 주문 할 수 있다.

이 패키지는 15kg 이하 반려동물만 이용할 수 있으며 객실당 최대 2마리까지 머무를 수 있다. 수익의 일부는 동물권행동 '카라'에 기부된다. 이와 함께 투숙객과 반려동물의 편의를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호텔 인근 레스토랑과 카페, 놀이터와 동물병원이 안내된 펫 패스포트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콘래드 서울 홈페이지로 문의하거나 콘래드 서울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신세계조선호텔, 강남·판교 등에 호텔 개장

신세계조선호텔은 올해 12월 경기도 판교에 306실의 독자 브랜드 호텔인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을 개장할 계획이다. 또 10월 말에는 서울 중구 저동에 비즈니스급 호텔인 '포포인트 바이 웨라톤 서울 명동' 문을 연다. 내년 4월에는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에 254실 규모의 최상급 호텔 브랜드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도 개장할 계획이다. 신세계조선호텔은 조선 팰리스와 그래비티 호텔에 대해 글로벌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소프트 브랜드 계약을 체결했다.

4 목포-제주 신규 크루즈선 '퀸제누비아' 취항

목포-제주 기점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최고의 연안 여객선사 씨월드 고속훼리(주)의 대형 크루즈형 카페리 '퀸제누비아'가 신규 취항했다. 국내 최대·최고·호화 크루즈형 카페리선으로 평가받고 있는 퀸제누비아는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된 씨월드고속훼리의 새 크루즈선이다.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0m, 2만7천391t 규모로 1천284명의 여객과 480여대의 차량(승용차 기준)을 싣고 최고 24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이 선박은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고급스러운 객실과 더불어 메인 로비 현 측에 대형 아트리움, 아고라 분수대, 오픈 테라스를 비롯해 국내 유일의 해상영화관, 펫 플레이 룸,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한 선내 이동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이 구비됐다.



5 에티하드항공 "코로나 확진 승객에 최대 2억원 지원"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항공사인 에티하드항공은 여행 첫날로부터 31일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는 경우 최대 15만유로(약 2억1천만원)의 의료 비용과 하루 최대 100유로(약 14만원)의 격리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티하드항공은 AXA와 협력해 코로나19 여행자 보험을 도입했으며, 해당 보험은 항공기 탑승일로부터 31일간 전 세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예약 날짜에 관계 없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여행하는 모든 승객에게 해당 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신규 예약 승객은 물론, 기존 예약 승객 역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에티하드항공은 지난 6월 11일부터 인천~아부다비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다.